

# 월간 실적보고

## 2016.03

### Summary of 2016 Mar

1. 해외 총 송객인원 (패키지+티켓) **14.2%** 성장
  - 패키지 **3.1%** / 티켓 **38.6%** YOY 성장 (**9.9**만명 / **6.1**만명)
2. 성장률 : 일본 **19.7%** , 남태평양 **17.3%** , 미주 **15.8%**
  - 일본 전 지역 중 **최고 성장률 19개월** 지속
  - 남태평양/미주 **15% 이상** 성장

### 3월 Review

**3월 합산 (패키지+티켓) 성장률 14.2%, 송출인원 16만명.** 비수기의 시작인 3월은 1Q16 내 이어진 순수 관광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1월과 비슷하게 전년대비 14.2% 성장했습니다. 3월의 느린 성장은 아직 순수 관광 수요 회복이 진행 중인 점, 작년 동월이 기고인 점(+40% YoY) 그리고 비수기가 시작된 시기인 점이 그 원인으로 보입니다.

**패키지 성장률 3.1%, 송출인원 9.9만.** 3월은 1월보다 1%P 증가, 소폭 성장을 했습니다. 중장년층 비중이 높고 순수 관광목적인 패키지는 고객 특성상 악재에 상대적으로 민감하여 더딘 회복을 보였습니다.

**티켓 성장률 38.5%, 송출인원 6.1만.** 14년 하반기 부터 1년 반 이상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티켓은 이번 3월에도 약 40%의 볼륨성장을 기록하며 회사 전체의 볼륨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 3월 실적

(단위 : 명, %)

	패키지	티켓	총 송객인원
2016	99,297	60,982	160,279
2015	96,287	44,012	140,299
YOY	3.1%	38.6%	14.2%

패키지 YoY : 1월 2.1% → 2월 14.7% → 3월 3.1%

티켓 YoY : 1월 40.5% → 2월 60.3% → 3월 38.6%

총송객 YoY : 1월 14.0% → 2월 28.9% → 3월 14.2%

### 지역별 성장

3월 해외 지역별 인원 성장률은 **일본 +19.7%, 남태평양 +17.3%, 미주 +15.8%** 입니다.

**일본 +19.7%**, 전년 동월의 기고 (+131% YoY)에도 불구하고 전 지역 중에 가장 높게 성장하여, 볼륨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ASP 또한 2자릿수 성장을 지속하며 매출 기여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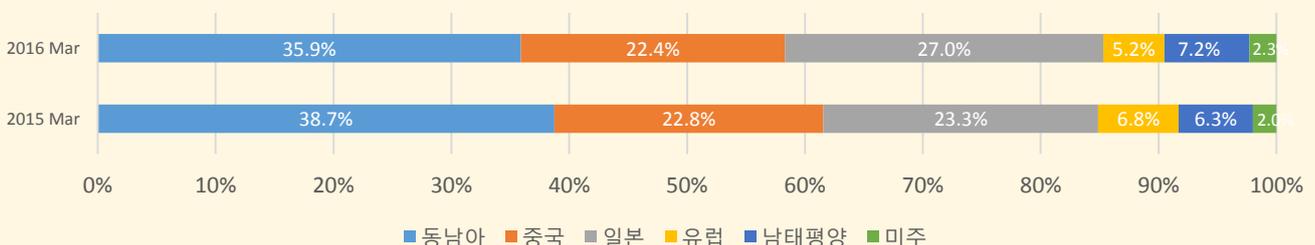
**남태평양 +17.3%**, 중·장거리 노선인 남태평양이 2자릿수 성장했습니다. 전통적으로 비수기에 성장률이 하락하나, 이번 3월은 2월 대비 약 10%P 증가 했습니다. ASP 또한 세달 연속 전년대비 증가 했습니다.

**미주 +15.8%**, 최근 5개월 중 4개월 동안 2자릿수 성장했고 이는 5개월 평균 17.3% 볼륨 성장입니다.

남태평양과 미주 지역의 좋은 성장이 유럽의 역성장을 상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동남아는 전년 동월의 기고(+33.7% YoY) 로 인한 소폭 역성장(-4% YoY), 유럽은 해소되지 못한 부정적 이슈의 영향으로 인한 역성장 (-21% YoY)을 기록했습니다.

### 인원 비중



**예약률 증감 (PKG)**

(단위 : 명, %)

	16년 4월	16년 5월	16년 6월
증감률	16.1%	7.1%	63.2%

\* 2016.3.31 기준 국내 포함 모객 현황

2016년 2분기의 패키지 예약 상황은 5월을 제외하고 양호한 상황입니다. 4월은 유럽을 제외한 전 지역의 양호한 성장성으로 인해 예약률이 긍정적입니다. 6월은 전년 기저효과와 패키지 수요 회복이 겹치면서 매우 높은 예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현충일 연휴로 인해 예약 시기가 앞당겨진 점과 향후 취소 발생을 고려하더라도 4월 이상의 볼륨 성장의 달성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소 부진한 듯한 5월은 높은 기고(15년 5월 +49.3% YoY)에도 달성한 성과입니다. 2분기는 그간 여러 악재로 인해 억눌려 있던 패키지 여행 수요가 서서히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